

기생과 문학

-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뜯 때」를 중심으로

정혜영*

차 례

- | | |
|--------------------|----------------------|
| 1. 서론 | 4. 몰락하는 기생, 부상하는 여학생 |
| 2. 기생 몰락의 사회적 의미 | 5. 결론 |
| 3. 기생과 그 거울로서의 여학생 | |

1. 서론

1922년 김동인은 기생의 삶을 다룬 「눈을 겨우 뜯 때」를 발표한다.¹⁾ 1919년 발표된 처녀작 「弱한 者의 슬픔」이 당대의 신여성인 여학생을, 그리고 연이어 발표된 「마음이 열린 者」이 신교육을 습득한 여교사를 여주인공으로 취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은 김동인의 선택은 다소간 의외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이는 「눈을 겨우 뜯 때」의 발표 시기와 연관해서도 동일하게 지적될 수

* 부경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김동인 문학에 대한 기존 연구는 논문으로는 金允植, 「反歷史主義志向의 考察」(『文學思想』, 1972. 11), 「東人の 唯美主義와 리얼리즘考」(『文學思想』, 1972. 11), 姜仁淑, 「自然主義를 중심으로 한 金東仁研究」(淑大大學院, 1963) 등이 있고, 저서로는 金允植, 『金東仁研究』(民香社, 1987) 김춘미, 『金東仁研究』(高麗大學校民族文化研究所, 1985)가 있다.

있다. 잡지 『신여성』이 改刊, 여학생이 시대의 히로인으로서 전면적으로 부각되고 있었던 시기에 기생을 작품의 히로인으로 설정하고 있다는 점은 김동인의 시대인식에 다소간 의문을 품게하는 요인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시기, 소설의 히로인으로서의 기생의 등장이 반드시 김동인에 한정되어 나타난 특징만은 아니라는 점은 이 의문에 대한 중요한 반론으로 제기될 수도 있다. 기생은 이미 1917년 최초의 근대소설이라 일컬어지는 이광수의 「無情」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한 후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뜯 때」를 거쳐 동시기인 1922년, 근대적 애정형태인 「연애」²⁾를 주된 테마로 해서 발표된 나도향의 「환희」³⁾에서도 역시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고 있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당대 작품 내부에서의 기생의 등장은 근대 초기의 시대적 분위기, 예를 들자면 여성의 교육과 지위향상에 대한 강력한 요청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생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뜯 때」에서 기생의 삶이 어떤 방식으로 형상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은 곧 그 작품, 깊게는 김동인의 근대성의 정도를 읽어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먼저 당대 사회에서의 기생의 사회적 의미를 고찰해보기로 하겠다.

2. 기생 몰락의 사회적 의미

1923년 개간된 잡지 『新女性』⁴⁾에서는 여학생에 대한 기사들이 특집으로 다

-
- 2) 1910년대 한국 문학에서 「연애」의 등장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는 즐고, 「근대를 향한 시선 -이광수의 <無情>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여성문학연구 제3호, 태학사, 2000)를 고찰하기 바란다.
 - 3) 이광수의 「無情」과 나도향의 <환희>간의 문학사적 연관 관계에 대해서는 번안 소설 『長恨夢』의 문학사적 의미를 고찰한 최원식 교수의 「「長恨夢」과 위안으로서의 文學」에서 이미 다루어진 바가 있다. 이 논문에서 최원식 교수는 「春香傳」과의 문학사적 연결 관계 속에서 「無情」을 분석하면서 당대 사회상의 변모를 고찰하기 위해 「無情」, 그리고 나아가서는 『환희』 두 작품에 등장하는 기생들의 비극적 운명에 주목하고 있다(崔元植, 「長恨夢」과 위안으로서의 文學, 『韓國近代文學史論』, 한길사, 1984).
 - 4) 『新女性』은 천도교계인 開闢社에서 1921년 간행되었던 여성잡지 『婦人』을 그 이름을 개제시켜 발행된 잡지로서 여학생들에 대한 기사를 주로 다루고 있다.

루어지고 있다. 여학생의 남녀교제 상황, 여학생의 향후 진로, 여학생의 복장, 헤어스타일, 심지어는 여학생의 애창곡에 이르기까지 여학생과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신여성'이라는 제명을 단 이 잡지의 중심테마로서 설정되고 있다. 이처럼 여학생이 이 시기 '모·던·걸' 즉, 신여성의 상징적 존재로서 거론됨에는 여학생이라는 존재 자체의 새로움과 더불어 그들이 몸에 익힌 신교육이 중요한 근거로서 작용하고 있다. 신여성과 구여성의 변별점을 "교육을 바든고로해서 학식"5)이 있으며 "리지(理智)에 월등"6) 함에서 찾는다는가 "학교공부불한녀자들을 가르쳐 '신녀자'"7)라고 규정했던 이 시기의 논설은 여학생이 신여성의 상징적 존재로서 부각된 주된 이유가 어디 있는가를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다.

여학생에 대한 당대의 관심이 이처럼 여성의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청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시대적 요청의 기저에는 1890년을 전후해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온 "녀중도 남중과 동등권이 있는것을 깨드려서 동등의 학문과 동등의 기예와 동등의 스업을 무애히 홈께"8)하는 사회, 즉 남녀평등의 근대적 세계에 대한 지향이 깊이 깔려 있었다. 1886년 이화여학교의 등장을 기점으로 속속 들어섰던 여학교의 설립이 이와같은 당대의 의식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이라면 남녀 교제 방법에 대해 상세히 언급한 1890년대 말 『독립신문』의 다음의 논설은 혼인제도과 연결, 그 실재적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놈의 나라에서는 사나회와 녀편네가 나히지각이 날만혼 후에 서로 학교든지 교당이든지 친구의 집이든지 못고지 곳혼데서 만나 만일 사나회가 녀편네를 보아 사랑홀 생각이 잇을것 곳흐면 그 부인 집으로 가서 자쵸 차차 보고 서로 친구 곳치 이삼년 동안 지내 보아 만일 서로 즐 사랑홀는 믿음이 생길 것 곳흐면 그때는 사나회가 부인 드려 주되 안해 되기를 청 하고 만일 그 부인이 그사나회가 믿음에 맞지 안 할것 곳흐면 안해 될슈가 업노라고 대답 호는 법이요 만일 믿음에 합의 호것을 또 서로 지내 보아 영령 서로

3) 朴英熙, 「장처네가지 단처네가지」, 『新女性』, 1924. 7, 39쪽.

6) 金基鐵, 「구식녀자와 달른덤」, 『新女性』, 앞의 책, 38쪽.

7) 小春, 「당신들은 新女子中の 新女子」, 『新女性』, 대정 13년 3월, 30쪽.

8) 金송자, 「한국 부인계에 새스상」, 『대한매일신보』, 1908. 8. 1, 『한국개화기문학연구총서』6, 국학자료원, 1983, 79쪽.

단단히 스랑 흐는 므음이 잇스면 그때는 혼인 택일 흐야 교당에 가서 하는
 님께 서로 맹세흐되 서로 스랑 흐고 서로 공경 흐고 서로 돕겡노라고 흐
 며⁹⁾

이 논설에서는 “서로 스랑 흐고 공경 흐며 밋부게 평생을” “조혼 친구 ㄱ
 치”¹⁰⁾사는 평등한 부부 관계를 이상적 부부관으로 설정, 결혼 전의 긴 교제 기
 간을 그 전제 조건으로서 재차 요구하고 있다. 중매 결혼·강압결혼이 당대의
 일반적 분위기였음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격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는 논설의
 이 요구에는 남녀 상호간의 정신신적 연결을 도모, 평등한 관계를 확보케하고
 자 하는 의도가 강하게 내재되어 있었다. 즉, ‘긴 교제기간’이라는 것이 “므음과
 뜻이 합흐”¹¹⁾여진 동등한 남녀관계를 형성키위한 것이었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는 무엇보다 “학문과 지식이 ㄱ”음, 즉 남녀간의 교육의 동등함이라는 물리적
 조건이 필수적으로 전제되지 않으면 안되었기 때문이다.

1900년대를 전후, 일본으로부터 수입되었던 ‘연애’가 이 점에 의거해서 근대
 적 세계의 새로운 애정형태로서 당대 지식인들에게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면,
 여학생이 ‘연애’의 히로인으로서 선택된 것 역시 바로 이 점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여학생이 일부일처제, 남녀 평등과 같은 근대적 의식의 체현자
 로서 설정되어 당대의 선망을 한 몸에 받게 되었음에 반해 일부다처의 상징적
 존재라 할 수 있는 기생과 첩은 상대 남성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그들이 일반
 적으로 나타내는 예측성, 정신성 결여에 의거, 몰락의 길을 걷게 된다. 개화 초
 기 신문 논설들에 나타난 첩과 기생에 대한 언급, 예를 들어 첩을 “요악하고 간
 교흐 태도”¹²⁾를 지닌 자로서, 기생을 예·창기의 구분 없이 일괄 “賣淫女”¹³⁾로

9) 「논설」, 『독립신문』, 1896. 6. 6. 『한국개화기문학연구총서』 1, 앞의 책, 89쪽.
 10) 논설, 앞의 글, 89쪽.
 11) 로병선, 「혼인론」,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9. 4. 19. 『한국개화기문학연구총
 서』 1, 앞의 책, 540쪽.
 12) 「론설」, 『대한매일신보』, 1907. 12. 6. 『한국개화기문학연구총서』 4, 앞의 책, 580쪽.
 13) 대한매일신보 1908년 10월 1일자 매음녀 단속 취체령에 대한 告知에서는 기
 생 역시 매음녀라는 명칭으로 동일하게 지칭되고 있다. 조선시대에는 기생이
 세가지의 부류로 분류, 단순히 몸을 파는 창기에 불과했던 삼패 기생과 달리
 일패 기생의 경우 藝技의 엄격한 훈련을 통해 문화의 창출자로서 사랑받았다는
 점을 상기한다면 이와같은 일괄적 통합에는 기생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 태도가

서 파악하는 등은 첩과 기생에 대한 당대의 비판적 시선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단서들이라고 할 수 있다. 『新女性』, 『婦女之光』등 신여성성을 중심 테마로 한 잡지가 활발하게 간행되던 1920년대 중반, 기생들에 의해 만들어진 『長恨』¹⁴⁾의 창간사는 1900년대를 전후해서 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이와 같은 태도를 충분히 표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만한 변화가 있다고 모든것을 내버려 둘수는없는 것이다. 자신에나 사회에나 불행하며 불리할줄을 알면 업새버려야하며 아니 하여야 할것이다. 이점에잇서서 조선에기생은 하루밤비 업새야하겠으며 아니하여야 하겠다. 그것은 기생자신에 참담한말로를 짓게되며 일반사회에 만흔해독을 끼치는 까닭이다. 될수만잇으면 기생자신을위하여 또는 일반사회를 위하여 기생이란 부자연한 제도가어서 폐지되어야하겠다.

△

그러나 현사회 제도가 아직 이것을 허락지안는것은 부인하지못할사실 이니 그대로 계속하여 잇기로 말하면 모든점에 잇서서 향상되며 진보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사회에 깃쳐지는 해독이 업도록하며 자신에드라오는 참담을 면하도록 하여야겠다. 이와가튼 취지에잇서서 문화덕시설의 하나이며 향상 진보기관인 하나로 잡지 장한(長恨)을 발행하는것이다.¹⁵⁾

조직적 단합의 필요성¹⁶⁾에 의한 창간 운운하는 일련의 논설에도 불구하고, 『長恨』의 기본 성격은 창간사에서도 나타나듯 기생 폐지론의 강력한 긍정 쪽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인습을 타파하고 새풍조의 눈뜨는 마음이 강렬한 여성”¹⁷⁾을 이상적 여성으로서 제시한 반면, 기생을 “신성을 잃어버린”¹⁸⁾자로서 그리고

충분 내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雜報』, 『대한매일신보』, 1908. 10. 1. 『한국개화기문학연구총서』 6, 앞의 책, 293쪽.

14) 잡지 『長恨』은 1927년 1월 기생들에 의해 간행된 기생 잡지로서 창간호에서 마감하게 된다.

15) 金月仙, 「창간에際하여」, 『長恨』, 1927. 1, 4쪽.

16) “적지않은 우리네도 이사회에 살아가자면 조직적으로 단합될필요가 있습니다. 이필요를 늦긴까닭으로 우리기생사회를 망라한 잡지가 비로소 고고의소래를 의치게되었습니다. 이 잡지야말로 우리의생활과 의사와 서툼과 깃분을 깃침없이 발표하는 마우스피어스(Mouthpiece)입니다.” 박록주, 「長恨에 대하여」, 『長恨』, 앞의 책, 45쪽.

17) 정류록, 「내가바라는 女性」, 『長恨』, 앞의 책, 59쪽.

18) 김계현, 「지금부터다시살자」, 『長恨』, 앞의 책, 28쪽.

“妓生 노릇은 一生의 厄運”¹⁹⁾으로서 단정해버리는 논설의 태도는 『長恨』의 기본 의도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이는 잡지에 실려있는 기사들의 내용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파악되는데 기생으로서의 삶의 참담함을 극대화한 수필이라든가 기생의 입장에서 손님에 대한 바람을 기술한 단문들은 기생 권익의 옹호보다는 기생이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가를 드러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기생이란 존재의 비천함, 기생으로서의 삶의 참담함이 강조되면 될수록 이는 곧 그들 기생이 남성과 형성하는 애정관계 및, 삶의 방식의 부정성을 드러내는 쪽으로 연결된다. 즉, 상대 남성과의 관계 맺음에 있어서 기생이 일반적으로 드러내는 예측성, 정신성 결여, 물질성에 대한 극단적 강조는 기생의 삶의 비극성과 연계, 여학생에 의해 상징되는 정신성 중시의 평등한 애정관계에 대한 깊은 찬탄과 선호 쪽으로 당대의 시선을 자연스레 옮겨놓게 되는 것이다. 여학생의 등장과 기생의 몰락. 『新女性』, 『新女子』, 『婦女之光』 등의 신여성을 다룬 잡지가 성행한 가운데 끼어든 기생잡지 『長恨』의 빈곤한 모습은 조흔, 일부다쳐, 강압결혼 등 구습 타파의 대 개혁의 상징으로서 1900년대를 전후해서부터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온 이 첨예한 대립의 전적인 반영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생 잡지라는 이유만으로 『長恨』이 받았던 비판²⁰⁾이라든가 제복과 교표제정을 통해서라도 여학생을 기생과 구별²¹⁾시키고자 했던 것 역시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분위기의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뜯 때」를 중심으로 기생 몰락의 시대적 분위기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9) 金一蓮, 「<妓生>노릇은 一生의 厄運!」, 『長恨』, 앞의 책, 7쪽.

20) “우리네 妓生들이 自由解放을 爲하여야는 雜誌도조코 新聞도조타만은 제 손으로 못하고서 남의손을 비러다가 浮浪者열치기 文士놈들의 배만붙이면 그안이원통하고 可憐하나 옛젧든 지금의 동모들은 鬼神의 造化가 다만쿠나 편지한장못쓰면서 長恨에는글잘쓰니 그것이웬일이냐 이생과저생이 소원한까답에 알지를못하니 궁금하가도답답하다.”(論介, 「現代의 娼妓娼婦에게 興하노라」, 『별진곤』, 1927. 3, 52쪽).

21) 『新女性』에서는 특집 기획으로 「女學生制服과 校表問題」를 싣고 다수의 논자들의 의견을 싣고 있다. 여기서 여학생 제복과 교표가 제정되어야 하는 주된 이유로 한결같이 기생과 여학생의 구별을 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新女性』, 1924. 8.).

3. 기생과 그 거울로서의 여학생

1917년 발표된 이광수의 『無情』은 당대의 신 청년 이형식을 중심으로 여학생 선형과 기생 영채간에 발생하는 삼각의 애정 관계를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 영채는 오랜 기간 연모해온 이형식의 사랑을 선형에게 빼앗길 뿐 아니라, 당대의 한량인 김현수에게 정조까지 유린당한 후 자살을 결심하는 비극적 운명을 지닌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다. 영채가 겪는 이 모든 불행의 기저에는 기생이라는 신분이 결정적 요인으로서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이형식만을 향한 지고지순한 애정과 연결되어 영채의 운명의 비극성을 증폭시키고 있다. 『눈물』, 『鍊光亭』, 『울밀대』등 신소설이라는 제명을 달고 발표되었던 다수의 소설에서 기생들이, 살인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물질에 대해 강한 집착을 나타낸다든가 육체성 중심의 애정관계에만 주력하는 등 편파적 이미지²²⁾로서 묘사되고 있었음을 고려할 때 『無情』의 영채가 지닌 이와같은 이미지는 다소간 주의를 요한다.

이는 『無情』에 등장하는 또 다른 기생, 영채의 친우이자 선배였던 월화에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는 것으로 월화의 경우 기생으로서서는 드물게도 정신성에 기반한 동등한 인간관계의 형성을 갈구하는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다. 이처럼 『무정』에서는 기생들이 일편단심의 지고지순한 애정과 정신성에 기반한 평등한 인간관을 지향하고 등장하는데 흥미로운 것은 그들의 몰락이 오히려 이로부터 기인되고 있다는 점이다. 퇴기 노파가, 스물 가까이 되도록 남성을 꺾지 않은 영채를 향하여 기생 답지않은 태도라며 비난의 눈치를 보내는 것에서 나타나듯, 일편단심의 애정을 지닌 영채의 태도가 기생답지 않았다면, 남성들과 정신성에 기반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월화의 태도 역시 기생답지 않았던 것이다. 월화와 영채가 겪는 비극적 운명은 이처럼 기생답지 않은 삶에 대한 그들의 지향에서 비롯되며 이는 곧 기생으로서의 삶에 대한 부정성의 쪽으로 작

22) 신소설이라는 제명을 달고 발표된 이상협의 『눈물』이라든가 작자 미상의 『鍊光亭』, 『울밀대』에는 기생이 등장, 갈등의 중심 축을 형성하고 있다. 평양집, 진주 집등의 이름을 지닌 이들 기생은 젊은 한 때에는 이름을 날리던 명기였으나 지금은 영락, 남자에게 버림받거나 혹은 두쟁이 짓이나 하며 살 정도로 비참한 말로를 맞고 있다. 여기에는 살인까지도 불사할 정도로 물질에 대해 이들이 지닌 강한 집착과 육체성 중심의 애정 관계가 중요한 원인으로서 작용하고 있다.

품의 태도를 자연스레 연결시켜 간다.

『無情』을 통해 나타난 기생에 대한 당대의 태도는 기생을 주인공으로 설정, 기생의 일상적 모습을 관찰해 가는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뜰 때」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고 있다. 1921년 발표된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뜰 때」는 불놀이가 벌어지는 사월 초파일의 대동강에서 손님들과 더불어 舟遊²³⁾를 즐기던 기생 금패가 한 무리의 여학생들과 우연히 마주치면서 시작된다. 서로의 배가 스쳐지나가면서 이루어진 이 만남은 순간적이긴 하지만, 여학생과 기생이라는 당대의 첨예한 대립구도를 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손님들과 더불어 놀잇배를 타고 능라도에 이르러 구경꾼들의 찬탄의 시선 속에서 자랑스럽게 노래를 읊조리던 금패가 여학생들이 내뱉은 몇 마디 조소의 말을 들은 후 일으키는 다음의 갈등은 그런 점에서 주의 깊다.

금패는 아직 여학생들의 시집간 뒤의 살림을 엿본 적이 없었다. 그러므로 그는 온전히 그를 몰랐다. 그러나 금패의 짐작으로서 바르다 하면, 그것은 봄에 외에핀 진달래와 같은 것이었다. 연한 자줏빛으로 빛나는 것 - 그것이 여학생들의 이 뿔살림에 다름 없었다. 피아노, 책을 보고 있는 মানুষ, 양복한 어린애, 여행, 그것이 그들의 살림에 다름 없었다. 그리고 그것은 큰 즐거움에 다름 없었다.

그러나 -

「이제 십년을 지내 보아!」

자기네의 이 뿔살림은 과연 여학생들의 말과 같이 구주주할까? 금패는 그것을 푹푹히 생각지 않으려 하였다. 그러나 그 동안에 순서 없이 몇 가지의 생각은 저절로 그의 머리에 지가갔다. 첩, 병, 매음, 매, 본마누라, 싸움, 이것이었다. 자기네의 앞에 막혀 있는 그림자는 이것이었다.²⁴⁾

아홉 살에 벌써 “기생의 빛나는 살림을 그리어 기생 서체에 붙여 달라”고 해서 기생이 되고 “열 네살에 시사”하였다는 약력이 평양 명기 금패의 기생으로

23) 평양의 전통적 유흥지였던 대동강 상류지역은 주로 기생들과 손님들간의 풍류를 즐기던 지역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김동인 「마음이 열은 첩여」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또한, 「妓生の 平壤, 牧師의 平壤」이라는 제목 아래 1928년 『별건곤』에 실렸던 평양 기행문에서 기생의 주된 유흥지로서 대동강 상류지역을 다루고 있음은 이에 대한 중요한 예로서 제시될 수 있다(『별건곤』, 1928. 8).

24) 金東仁, 「눈을 겨우 뜰 때」, 『金東仁文學全集』 7, 大衆書館, 1983, 210쪽.

서의 자부심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면, 이 자부심은 여학생의 등장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무너져가기 시작한다. 대동강 뱃놀이에서의 대면 이후 여학생은 때로는 금패의 경멸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금패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금패로 하여금 자기 회의를 느끼게 하는 대상이 되기도 하면서 부단히 금패의 주위를 맴돌게 된다. 이처럼 여학생들은 작품에서 주도적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패를 감시하고 모습을 비추어내는 거울의 역할로서 작품을 이끌어 간다. 금패로 하여금 기생으로서의 삶에 깊은 의문과 회의를 처음으로 품게 했던 과거의 한 사건이 바로 대동강 뱃놀이에서의 여학생들과의 대면 이후 새롭게 떠올려진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 깊다고 할 수 있다.

손님들과 더불어 뱃놀이, 어죽놀이, 연회나 돌아다니고, “시간을 보낼 핑계가 없어서 피로워하”다가 마침내는 쓸데없는 뜬소문이나 이야기 해대는 것이 금패의 일상사이며 그녀가 상대 남성들과 형성하는 일반적 관계의 패턴이라고 할 때 금패를 홈모, 그로 인해 죽음에 이른 A의 사건은 이와 같은 금패의 삶을 기생 일반의 삶으로 연결시키는 중요한 단서가 된다. A가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일련의 과정 - 금패와의 하룻밤을 위해서 지닌 모든 돈을 사용, 다시 한번 더 절축을 원하다가 돈이 없어 거절당한 후 마침내 금패의 집 근처에서 얼어죽는 과정- 에서 금패가 나타내는 냉정할 정도의 자기 통제, 예를 들자면 A를 싫어하면서도, 그가 손님으로서 오는 한에서는 깍듯이 맞아들인다가나, 애절하게 애정을 호소하는 A에 대해서 선부른 연민에 빠지지 않는 모습은 바로 기생으로서 금패가 지닌 철저한 프로적 태도²⁵⁾로 밖에는 읽혀질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경제력에 의거, 남성을 평가하는 물질 중시의 태도 역시 금패 자신의 개인적 성향으로 파악되기도하는 아홉 살 때부터 기생수업을 받은, 뼈 속까지 철저히 기생인 금패의 기생으로서의 특성으로 자연스레 귀결되게 된다.

이처럼 물질성과 육체성에 근거한 애정관계 형성이 기생의 일반적 특질이라고 한다면, 금패의 비극은 이와 같은 기생으로서의 삶을 회의를하기 시작하는데

25) 기생의 태도에 대해서 언급한 『長恨』의 논설의 다음의 한 구절은 이와같은 금패의 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하다 하겠다. “특별한 경위는 제외로하고 우리기생은 엇쟁든 나를 찾는 손님은 다갓치 웃는낫과 다정한태도로 접대할의무가 있는것입니다.”(金蘭紅, 『妓生生活裏面』, 『長恨』, 앞의 책, 70쪽).

서 비롯되고 있다.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대해 금패 스스로가 나타내는 갈등과 회의는 이 점에서 주목할만하다.

그 가운데 그가 다만 하나 알은 바는, 그는 결코 남에게 온전한 사람의 대접은 못받고 있다는 심히 불유쾌한 점이 있었다. 손님은 그를(기생)을 「업신여길 수 있으므로 사랑스러운 동물」로 알았다. 부모는 「돈벌이하는 잡은 것」으로 대하였다. 예수교인은 마귀로 알았다. 도학자는 요물로 알았다. 어린애들은 「영문 앞의 도상」이라고 비웃어 줄 곱게 차린 동물로 알았다. 노동자는 「자기네도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알았다. 늙은이나 젊은이나 한결같이 그들을 다만 춘정을 파는 아름다운 동물로 알 뿐, 한 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는 보지 않았다. 그를 사랑하는 자나, 그를 미워하는 자나, 또는(돈이나 경우로 말미암아) 감히 접근치도 못하는 못하는 자까지도 그를 어떤 음란스런 생각 아래서 볼 뿐, 한 개의 사람으로는 안보았다.²⁶⁾

구경꾼들의 찬탄의 시선 속에서 자랑스럽게 노래를 읊조리던 대동강에서의 금패를 떠올린다면 금패에게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자기비하, “춘정을 파는 아름다운 동물”로서 기생을 표현한다거나 “인생을 살아가길 유일의 방책은 순간 순간의 쾌락을 취”하는 것이라며 기생으로서의 삶을 자조한다거나 하는 모습은 놀라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기생의 세계를 일컬어 “술을 먹고 고꾸라져 정신을 못차리는 소위 손님”과 “음란한 노래, 음란한 말과 변변치 않은 헛소리”로 이루어져 있다며 비난하는 순간의 금패는 이미 회귀가 불가능할 정도로 기생의 세계를 벗어나 있거조차 하다. 이 점에서 금패는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에 절망, 죽음에 이르렀던 『無情』의 기생 월화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월화가 그 회의와 절망을 정신성에 기반한 평등한 인간관계에 대한 자각으로 연결시켰던 반면, 금패의 경우 과도한 “신경과민”으로 인한 “수면부족”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데, 그 한 예로 제시될 수 있는 것이 결혼을 바라보는 비현실적일 정도로 이상화된 금패의 시선이다.

작품을 통해 볼 때, 금패에게 있어서 결혼은 “극락세계”, 혹은 “축도”로까지 이상화되어 파악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다다를 수 없는 결혼에 대한 금패의 낭만적 환상, 시대의 히로인으로 부상한 여학생에 대한 금패의 선망, 그리고 질투

26) 김동인, 앞의 책, 214쪽.

가 중요한 요인으로 자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금패가 파악하기에 다수의 남성들과의 순간적인 삶의 향락이 기생들의 몫이었다면, 남편과 “힘을 같이하여 온갖 일을 하며 틈 있을 때마다 같이 즐거이 웃고 날뛰”는 “살림살이”, 즉 결혼은 오로지 여학생의 몫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여학생과의 대조를 통해 자기멸시에 빠져드는 불안정한 금패의 모습은 남녀 평등이라는 낯선 개념의 갑작스런 이입 속에서 대처할 사이도 없이 몰락을 경험하게 되는 1920년대 기생들의 비극적 운명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상당한 주의를 요한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당대 사회 내부에서의 여학생, 즉 교육받은 신여성의 가치를 이처럼 결혼으로 단순하게 환원시켜버리는 것과 같은 금패의 막대한 인식의 정도 역시 당대가 근대적 제도와 이념들이 자리잡기 시작한 과도기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일견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한다.

그러나 당대 사회적 정황 속에서 기생 뿐만이 아니라 진보적 의식을 지녔던 적잖은 신여성들 역시 시대의 히로인이라는 화려한 외관과는 달리 보수적인 현실의 벽에 걸려 몰락을 경험했음을 고려한다면, 여학생의 가치를 낭만적 결혼생활의 향유에서 찾는 것과 같은 금패의 태도는 여성의 교육, 여성의 지위 향상과 같은 첨예한 현실 문제들을 일순 무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키기도 한다. 그런 점에서 비극적 결말부, 즉 기생으로서의 삶에 대한 회의와 절망 속에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금패의 몰락은 이와 같은 의식의 미숙성에 기인할 때 이미 예견된 당연한 결과였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금패가 지닌 이와 같은 인식의 한계가 어디서부터 비롯되고 있는가에 대해 전통적 명절에 대한 작품 내부의 묘사와 연결지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4. 몰락하는 기생, 부상하는 여학생

「눈을 겨우 뜯 때」는 사월초파일의 대동강 불놀이 광경에 대한 긴 묘사로부터 시작된다. 평양 유명 유흥지인 대동강 상류지역에서 벌어지는 불놀이 광경 묘사에 이어 금패를 비롯 기생과 손님들이 탄 배가 작품 속으로 떠 올라온다. “배 배 부 배로 이속고 취흥이 배 안에 들고 칩의 왕복이 더해지게 되”는

주홍의 분위기와 “까닭은 모르지만 엉덩이를 들추어 주는 것 같은 기쁨을 참지 못하여 가만히 장고를 끌어 당기는” 기생 금패의 취기 오른 모습은 사월 초파일의 대동강 불놀이 풍경 구성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하고 있다. 신혼여행에서 막 돌아와 수 십 년 만에 벌어진 관동놀이의 대 장관을 관람하는 작가 김동인의 과다한 흥분이²⁷⁾ 그대로 분출되는 서두부의 불놀이 광경의 묘사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 깊다.

위아래, 동서남북, 모두 불이다.

강 좌우편 언덕에 달아 놓은 불, 배에서 빛나는 수천의 불, 지적거리며 오르내리는 수없는 배, 배 틈으로 조금씩 보이는 물에서 반짝이는 푸른 불, 언덕과 배에서 지절거리하는 사람의 떼, 지절거림을 누르고 때로는 크게 울리는 기생의 노래, 그것을 모두 썩 어두운 대기에 반사하는 빛, 강렬한 사람의 냄새 - 유명한 평양 4월 8일의 불놀이의 경치를 순서 없이 벌려 놓으면 대개 이것이다.²⁸⁾

계속해서 긴 분량에 걸쳐서 불놀이 광경에 대한 묘사가 진행되고 이는 다시 “여기저기서 나는 기생의 노래”, 그리고 “한국 아악”으로 귀결되면서 기생을 대동강 불놀이의 주인공으로 부상시킨다. 평양 사월초파일 불놀이 경치의 구도가 이로써 완전하게 재현되고 있는데 이 구도는 대동강 불놀이를 일컬어 “온갖 것을 초월한 「삼」의 문제가 있다”며 극찬하는 작품의 태도와 연결되어 전통적 세계를 바라보는 김동인의 시선으로 조심스레 확대되어간다. 그러나 작품을 통해 행해지는 전통적 세계의 재현은 방아타령을 부르며 등장하는 금패에 손에 들려진 맥주병으로 인해 일견 다소간 불길한 징조를 보이기도 하다.

불놀이가 거행되는 초파일의 대동강으로 금패가 들고 들어오는 맥주병은, 그것이 근대적 여러 문물과 더불어 수입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전통적 세계의 몰락을 예고하는 하나의 복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게 한다. 이는 금패의 등장 이후, 근대적 교육을 습득, 당대의 신여성으로 부상한 여학생들이 기생과 한국 아악의 영역인, 전통적 명절의 대동강에 등장, 금패를 향해

27) 김동인이 목도한 불놀이 광경에 대해서는 「文壇三十年史」에 상세하게 기술되고 있는데 이 경험이 훗날 주요한 「불놀이」의 중요한 테마로서 작용하고 있다고 한다(김동인, 「文壇三十年史」, 『김동인문학전집』 12, 앞의 책, 258쪽).

28) 김동인, 「눈을 겨우 뜯 때」, 앞의 책, 202쪽.

비난을 퍼붓는 장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지점에서 「눈을 겨우 뜰 때」는, 기생 영채의 여학생으로의 변모를 통해 근대적 세계로 과감하게 발을 들였던 『無情』과는 상반되는 행보를 보이는데, 단오절 행사에 대한 다음의 묘사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지금엔 없었지만 그 당시의 젊은 평양 여인의 기껏 잘 차려 뒹모양은 사람으로 하여금 신성한 느낌을 일으키게 한 것이었다. 기다란 은행색 치마에, 남빛 배자로 장식한 송화빛 저고리와, 그 위에 나비와 같이 예쁘게 올라앉은 수건 새로, 때때로 펴려이는 새빨간 땡기의 뒹모양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욕이니 욕욕이니하는 생각을 온전히 초월한 신성한 느낌을 일으키게 한다. 그것은 오히려 인형에 가까운 아름다움이었다. 그리고 따라서 「자연」이라는 것보다 한 예술품이랄 수가 있었다.²⁹⁾

기생으로서의 삶에 회의를 느끼는 금패의 갈등 묘사에서 작품은 갑작스레 단오로의 시간적 전이를 감행, 그 행사에 대한 장황할 정도의 긴 묘사로 이어진다. 송화빛과 은행색으로 치장하고 단오를 즐기는 여인들의 모습은 어족놀이를 나온 기생 금패 일행의 뱃놀이 광경과 연결되면서 단오절로 상징되는 전통적 세계를 재현시켜 간다. 물론, 여념집 아낙네들을 향한 금패의 동경의 시선이 중간중간 삽입, 기생으로서의 삶의 참담함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기는 하지만 작품은 그보다는 오히려 능라도와 반월도를 오가며 단오를 즐기는 기생 금패의 뱃놀이와 어족놀이가 광경 묘사에 훨씬 경도되어 있다. 이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수면부족”과 “신경과민”에 이를 만큼 극심했던 금패의 절망은 사월초파일에서 오월단오에 이르는 전통적 축제의 화려한 분위기 속으로 파묻혀 가게 된다.

여기에는 술 취한 손님과, “이성의 냄새를 그리는 무르익은 아우” 이외에는 본 것이 없었다는 금패의 하소연처럼 아홉 살부터 기생 수업을 받고, 열네살에 기생이 되었던 금패가 경험한 세계의 협소함이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그의 머리, 그의 지식이 허락하는 한, 모든 것을 알려”고 노력하다가도, “새지식이 나오지”않는다며 갑작스레 죽음의 충동 쪽으로 자신을 내몰기도 하는 불안정할 정도로 히스테리컬한 금패의 모습은 금패 개인의 성격적 결함만으

29) 김동인, 「눈을 겨우 뜰 때」, 앞의 책, 220쪽.

로 결론내릴 수 없는 좀 더 복잡한 사회적 요인을 고려케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더 깊이 생각하려면 머리가 엇바뀔 뿐 모든 것은 수수께끼가 되어”버티므로 적절한 수준에서 갈등을 포기, 축제의 여흥 쪽으로 빠져드는 금패의 모습 역시 기생 일반의 특질을 절묘하게 반영하고 있는 듯하기도 하다. 그러나 이처럼 금패의 삶을 통해 표현되고 있던 1920년대 기생 사회의 모습, 예를 들자면 적잖은 예기들의 신과극 배우로의 전환³⁰⁾과 같은 1920년대 기생 사회의 위기에 찬 모습은 결말부 급작스레 행해지는 금패의 죽음으로 인해 상당부분 희석되고 있다.

그네를 떠던 금패는 “우정인지 혹은 저절로인지(금패 자신도 똑똑히 몰랐으나)오른편 손아귀에 힘이 조금씩 풀리”면서 갑자기 그네에서 떨어져 죽게되는데, 금패의 죽음으로 상징되는 이와 같은 기생의 죽음은 동시대의 두 작품, 이광수의 『無情』 그리고 나도향의 『환희』³¹⁾에서도 동일하게 파악된다. 원인이 불명료한 금패의 죽음에 비해, 정신성에 기반한 평등한 인간관계에 대한 열망으로 인해 자살로서 삶을 마감했던 『無情』의 기생 월화나, 기생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사람의 남성과 정신성에 기반한 애정관계를 형성하고자 한 점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한 『환희』의 기생 설화의 죽음은 남녀 평등의 근대적 이념을 다시 한번 환기시킨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물론 『無情』의 월화나, 『환희』의 설화가, 현실에 대한 자신들의 갈등을 자살이라는 정제되지 않는 파괴적 행위로서 해결해버린다는 점에서는 수시로 죽음의 충동을 표출해내던 “눈을 겨우 뜰 때”의 금패의 히스테리컬한 모습과 동일하게 파악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경우 그 자살이 예측적 남녀관계에 기반한 “위계적인 세계”에서 평등한 인간관에 기반한 “균질 공간”³²⁾으로의 전환을 기획하고 있던 시대적 변화에 대한 그들의 깊은 정신적 자각, 엄밀히 말하자면 창산되어야 할 구시대적 존재로서의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극명한 <눈 뚫>에

30) 「여배우와 기생」란을 보면, “女俳優가 藝術家이고 따라서 妓生도 藝術家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조선의 녀배우와 기생과는 끈을래야 끈을수업는 무슨집혼 판계가 있는듯싶다.”며 기생의 신분으로 조선극단에서 손가락 꼽히는 여배우가 된 경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K. O. 生, 「女俳優와 妓生」, 『長恨』, 1927, 32쪽).

31) 나도향, 『환희』, 동아일보 1922. 11. 21~1923. 3. 21.

32) 가라타니 고진, 『일본근대문학의 기원』, 박유하 옮김, 민음사, 1997, 85쪽.

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죽음을 금패의 죽음과 구별짓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축제의 와중, 우발적이고 급작스레 이루어지는 금패의 죽음이 오히려 금패의 삶의 비극성을 회색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의미에서이다.

이로써 「눈을 겨우 뜰 때」에는 근대적 세계를 향한 당대의 분주한 행보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몰락의 길을 걸었던 기생들의 비극적 삶 대신, 오월 단오 혹은, 기생의 놀잇배가 떠있는 대동강과 같은, 소멸되어 가는 하나의 세계가 재복원 되게 된다. 여기에는 전통적 세계의 급격한 해체를 목도하는 김동인의 애잔한 감정이 하나의 요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그러나 그 전통적 세계의 형상이 부단히 기생의 유흥놀이를 중심 그림으로 하고 있다는 점은 김동인이 지향하는 전통적 세계의 실체를 다소간 짐작케 하기도 한다. 여학생을 기생의 운명의 조력자 혹은, 계몽자의 역할로서 파악했던 『無情』과 달리, 여학생을 기생의 적대자로서만 파악, 여학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 차있던 「눈을 겨우 뜰 때」의 태도는, 기생에 대한 작품 내부의 연민의 시선과 결합, 일부다처의 전근대적 세계에 대한 긍정과 선호로 작품의 성향을 결정짓게 된다. 그리고 이 세계가 바로, 낯설은 근대적 이념의 이입 속에서 기생과의 유흥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평양 갑부의 아들 김동인이 편안히 몸을 담고 있던 곳이었다고 할 수 있다.

5. 결 론

신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한 두 작품, 「弱한 者의 슬픔」과 「마음이 열린 者」을 발표 한지 삼년 후인 1922년, 김동인은 기생의 삶을 다룬 「눈을 겨우 뜰 때」를 발표한다. 삼 년간의 시간적 거리와 소재의 이질성에도 불구하고, 「눈을 겨우 뜰 때」는 전술했던 두 작품의 연장선상에서 있는 작품으로 파악될 수 있는데 여기에는 여성의 지위 향상에 대한 당대의 관심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弱한 者의 슬픔」과 「마음이 열린 者」, 그리고 「눈을 겨우 뜰 때」를 통하여 김동인이 제시하고 있는 신여성 對 기생의 대립구도, 엄밀히 말해서 상충하는 신여성과 몰락하는 기생간의 삶의 명암의 대비는 남녀평등을 지향한 당대의 제 의

식에 크게 빛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신여성이, 신교육을 습득하여 남성과 동등한 지위를 형성해감에 의해 당대 문학의 히로인으로 등장할 수 있었다면 일부다처의 상징적 존재였던 기생의 경우 그 몰락의 과정을 통해 남녀평등의 근대적 세계를 전면적으로 부각시켜주는 점에 의거, 이와 같은 의식을 표방한 당대의 소설들에서 주된 등장인물로 채택되고 있다. 이처럼 근대문학에서의 기생의 존재란 신여성의 밝음을 부각시켜 주는 어둠의 역할에 다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이광수의 『無情』에서 포착된 바 있는 이 구도가 근대적 애정형태인 <연애>를 중심테마로 취한 몇몇 작품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바로 이 점 때문이다. 그 구도의 연장선에서 김동인은 1922년 기생의 삶을 다룬 「눈을 겨우 뜯 때」를 발표한다.

「눈을 겨우 뜯 때」에서는 근대적 세계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던 당대 사회적 정황이 금페라는 기생의 몰락 과정을 통해 포착되고 있다. 그러나 금페라는 인물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던 당대 기생들의 운명, 즉 예기(藝妓)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하는 등 사회적 생존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역사 변혁의 과정에서 몰락을 겪지 않으면 안되었던 이들 기생들의 비극적 삶이 작품을 통하여 별반 정확하게 반영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당대 주요 권번들을 중심으로 기생 품격 향상을 위해 기생의 여학생 복장 착용 금지가 엄격히 거론되었을만큼³³⁾ 여학생에 대한 기생의 동경과 선망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학생을 “기생을 본받”아 사치나 하는 무자각적 존재로서 묘사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근대적 세계에 대한 이해의 결여가 한 예로서 제시될 수 있다.

물론 당대의 논설들에서도 지적되고 있듯, 이 시기의 여학생, 즉 신여성들에게서 오만함, 지식욕 부족, 허영심, 그리고 자유연애 사상에 깊이 동조한 결과로서의 성적 방만함 등과 같은 문제점³⁴⁾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은 여학생에 대한 이와 같은 비난을 상당부분 수긍케 하기도 한다. 그러나 당시 “우리의 新文

33) 동아일보 1923년 1월 29일자에는, 경성의 4대 권번들이 모여 “기생의 품격을 향상케하는 동시에 사회의 풍귀를 유지하기위하”여 기생의 여학생 복장 착용을 엄중히 금지하기로 했다는 기사가 실려 있다(『동아일보』, 1923. 1. 29. 3면).

34) 『新女性』 1924년 7월호에서는 「요사히 新女性の 長處와 短處」라는 제목으로 다수의 사회 저명 인사들이 바라본 신여성의 특징에 대한 글을 실고 있는데, 여기서 이상의 문제점들이 일관되게 지적되고 있다.

화가 아직 黎明을 벗어나지 못했다”던 즉, “新女性에는 未熟하고 汚染한 狀態”³⁵⁾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문제점은 이들 신여성이라는 새로운 패턴의 인간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잔여물 혹은 어둠의 부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할 때, 이 어둠의 부분에 대한 「눈을 겨우 뜯 때」의 집착은 여타 김동인의 작품들에서 확인되는 기생과의 유희에 대한 탐닉과 연결, 김동인의 의식으로 자연스레 확대되어 간다. 즉, 근대적 이념 및 제도의 이입 속에서 정체성의 심각한 혼란을 보이던 기생 금패의 모습은, 변혁기에 선 작가 김동인의 한 반영에 다름아니었던 것으로, 여기에는 근대적 세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 대신, 기생과의 유희로 정리되는 전근대적 세계에 함몰되어 있던 김동인의 의식의 한계가 중요한 요인으로서 제시될 수 있다.

35) 蘇義植, 「될슈잇스면 「忙中閑人」으로, 『新女性』, 1924. 7, 41쪽.

<Abstrat>

Kisaeng(妓生) and Literature

- on Kim Dong In's (When the Eyes were Hardly Opened)

Jeung, Hae-Young

In 1923, which is 4 years after he published two works, namely <The Sorrow of the Weak> and <O Thou the Shallow Hearted>, both having New Woman as heroine, Kim Dong In publishes <When the Eyes were Hardly Opened> which focuses on the life of a Kisaeng. Despite the time space of 4 years and heterogeneity of the subject, the work <When the Eyes were hardly Opened> can be identified as an extension of the said two works. Here the concern of the contemporaries about improvement of women's estate plays an important role, because the oppositional plot, i.e. New Women vs Kisaeng, or, strictly speaking, the contrast between the life of rising New Women and the life of falling Kisaeng, owes much to the general cognizance of contemporaries towards the equality of man and women.

Although the work <When the Eyes were Hardly Opened> employs a poignant oppositional plot, the conflict between a Kisaeng and a Girl Student, as the theme of the work, the despair of the Kisaeng which she suffers in her contemporary society is diluted in the work through the revival of traditional world such as the Feast of Dan O Jul and the Feast of the Eighth Day of April, and the Girl Student is approved of her value only through the form of a marriage. Consequently, in the work <When the Eyes were Hardly Opened> a mere conceptual world presented by Kim Dong In remains instead of the reality of the time, and that is non other thing than the world of pre-modern era which is symbolized by the revel of Kisaeng.